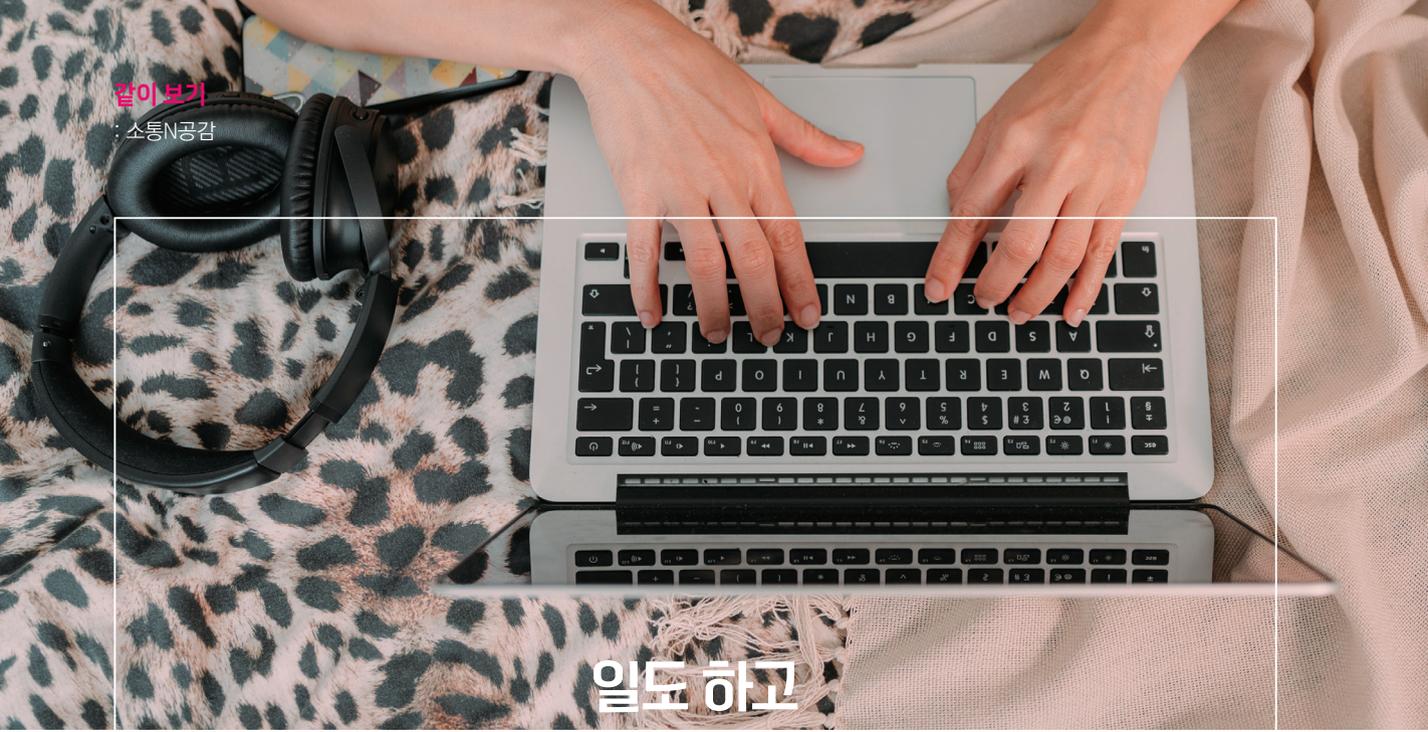


같이 보기
소통N공감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워케이션 WORCATION



일, 휴식, 놀이. 보통은 각각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워케이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일과 노는 것을 병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글 편집실



놀면서 일도 함께한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급부상하기 시작한 워케이션(Worc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일컫는다. 코로나19로 특히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나 자유로운 사무실 출근, 업무 장소의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놀면서 일하는 워케이션 방식이 업계 근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집에서 또는 자유로운 장소에서 원격으로 자유롭게 근무하던 형태에서 나아가 놀거나 휴양을 할 수 있는 국내 관광지나 해외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워케이션이 자리 잡게 된 근간에는 장소 선택권을 보장해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IT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된 것이 크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것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지속적인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유튜브 같은 크리에이터나 블로거, 오픈마켓 판매자, 프리랜서, 일부 해외 IT 관련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자리 잡아간 디지털 노마드 트렌드에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급부상으로 워케이션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확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일과 놀이의 유연한 결합으로 워라밸을 하라



디지털 노마드는 유목민(Nomad)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과 주거를 행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해진 큰 이유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디지털 장비와 IT 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특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택하곤 했다. 여기에 일과 성공에 치우치기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거나 소확행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원격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단순히 재택근무를 시작한 상황에서 보다 즐겁게,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집안에만 갇혀있는 재택근무에서 벗어나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장기간 대여하거나 한 달 살기 등을 하면서 워케이션이 트렌드가 되었다. 즉, 기존에는 일과 삶의 경계를 구분 짓던 것이 팬데믹이 유발한 재택근무로 그 경계가 무너지자 오히려 일과 놀이, 휴식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워케이션은 특히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는 곧바로 여행지의 일상이나 놀이, 휴가를 즐기면서 다시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워케이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해외의 휴양지를 선택하거나 국내의 경우 제주도 같은 휴양지, 또는 도시에 있는 호텔, 그리고 농촌 같은 곳의 한옥 같은 전통가옥 체험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휴식의 이점을 통해 업무로 생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해소하고 충전해 다시 업무로 돌아와 능력을 올리거나 자기 계발로 돌리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여행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워케이션을 다녀온 1천 명 중 5분의 4 이상이 워케이션을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아졌고 업무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다. 결국 일과 놀이의 유연한 결합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워라밸의 실천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

